

여도의 죄 (餘桃之罪)

故事와 불 (연재 제31회)

〈김동일 / 방재시험연구원 교수 · 소방기술사〉

미자하(彌子瑕)라는 소년이 위(衛)나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모친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임금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허가 없이 왕의 수레를 타면 법에 의해 두 다리가 잘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효성이 지극하다며 오히려 상을 내렸다.

다른 하루는 복숭아를 먹다가 맛이 너무 좋은 나머지 입에 댄 복숭아를 왕에게 바쳤다. “그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나에게 주다니 진정 너의 사랑을 알겠도다.” 왕은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되자 왕은 사소한 일로도 심히 그를 꾸짖었다. “이제는 본래 성품이 좋지 못하여 예전에 집을 속이고 내 수레를 탔으며, 심지어 짐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餘桃의 罪”는 이처럼, 좋은 시절엔 칭찬 받을 일도 마음이 떠나면 죄가 된다는 뜻으로서 인간사에 있어 선악과 애증의 무상함을 실감케 하는 말이다.

실제 미자하는 위나라의 재상이 된 후, 흔히 그렇듯 왕의 위세를 믿고 멋대로 행동하며 필경에는 왕의 눈을 가리고 말았다.

어느 날 복도정이라는 난쟁이가 왕을 알현하였다. ▲복도정 : 꿈에 아궁이를 보았더니 이렇듯 군주를 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위왕 : 군주를 뵈는 자는 “태양”을 꿈꾼다고 들었다. 그런데 너는 꿈에 보잘 것 없는 아궁이를 보고 나를 만났다니 무엄하기 짝이 없구나. ▲복도정 : 태양은 언제나 천하를 두루 비추며, 누구도 그 빛을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아궁이의 불은 한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불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주를 뵈기에 앞서 아궁이를 꿈꾸었던 것으로 미루어 지금 누군가가 군주 앞에서 그 총명을 가리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잡뭇된 신하로 인하여 “아궁이”가 되고 만 왕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미자하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재상을 임명하였다.

경주(慶州) 사는 재담꾼 정만서의 아들이 편찮은 아버지를 사랑방에 모시고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있었다. 한참 불을 켜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구들목이 파곤파곤합니까?”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들렸다. “아직 너근반너근반 하다.” 파곤파곤닷근닷근해야 할 방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그리 대답한 것이다. 아픈 와중에도 여유로운 모습이다.

우리 옛집에서 취사와 난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던 아궁이는 돌을 쌓고 황토로 마감하였는데, 아궁이 불을 쪼이며 부엌일을 하던 옛 여인들에게 자궁암과 같은 부인병이 없었던 것은, 불 먹은 황토가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이를 예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요즘 들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찜질방에서 이 원적외선을 쪼일 수 있다하여 남녀노소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찾는다고는 하는데...